

일제강점기 기존 건물을 전용한 군청사의 개축 및 증축 양상

김명선*

¹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Remodeling and Extension of reused Goon(郡) Office Build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yungsun Kim*

¹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ivi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건물을 전용하는 군청사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전용한 군청사의 건축적 특성은 무엇인지, 군청사 기능에 맞게 증개축하는 경우 그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군청사 관련 디지털 도면자료, 해제와 더불어 조선총독부와 각 도 사이에 오고간 문서와 신문·잡지의 기사·도면·사진 등을 발굴·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군청사로 전용된 건물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지방관립시설, 대한제국기 군청사,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로 나뉜다. 전용 건물을 군청사의 위상과 기능에 적합하게 개축할 때는 방을 구획하는 벽을 털어내 큰 방을 만들고 접수대를 놓아 직원의 업무공간과 민원인의 대기공간으로 구분했고, 증축은 전면 중앙에 작은 돌출현관을 내달고 간단한 양식 목조의 부속가를 본가의 뒤나 옆에 신축하고 외부연결복도로 이었다. 전용 군청사가 전체 군의 약 30%로 많고 전국에 걸쳐 있었는데, 그 57%가 나중에 신축되는데 절반은 1930년대 전반기 신축되고 이후 급감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which *Goon* office buildings were reused from existing buildings and to identify remodeling and extension ways of the reused to match *Goon's* administration work.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search method, i.e., analysing the digital images, the annotation, and the official document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o*(道), and articles of newspapers and journals. The reused were governmental offices of *Joseon*(朝鮮) dynasty, existing *Goon* office buildings of Korean empire government and old buildings with unknown purposes. They were remodelled and extended to match *Goon's* administration work. Common remodelling was making large space with desks for civil petitions and projecting an small entrance from the center of main building's facade. Common extension was constructing accessory buildings with simple wooden structure, locating them to back or side of the reused, and connecting them through external corridor. As many as 30% of 218 *Goon* office buildings were reused. About 57% of them were replaced as new office buildings, however the number of the new was rapidly decreased after mid 1930s.

Keywords : Extension, *Goon* Office Building, Governmental Facility, Japanese Colonial Period, Remodeling, Reus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895년, 1896년, 1899년, 1906년 단행된 지방제도 개편으로 개항장·개시장에 위치한 군(郡)들은 부(府)로 승

격되고 지방의 유서 깊은 행정·경제의 중심이자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컸던 평양·개성·수원·공주·전주·광주·대구·의주·함흥·황주·강화 등 주요 부들이 군으로 강등된다[1]. 강점 이후에도 지방제도는 개편된다.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제』(칙령 제357호, 『조선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Kim(Sunmoon University)

Tel: +82-41-530-2323 email: rosaria@sunmoon.ac.kr

Received February 9, 2015

Revised (1st May 26, 2015, 2nd June 22,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총독부관보』 제28호, 1910.9.30.)가 공포되면서 식민지 조선은 다음날인 10월 1일부터 13도(道) 아래 12부, 317군, 4,356면의 체제가 된다.

군의 변화만 보면, 1914년 3월 1일 97군을 감축하여 220개 군이 되고, 1915년 5월 1일부터 도(島)제가 실시되어(조선총독부령 제44호,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5.5.1.) 전남 제주군과 경북 울릉군이 각각 제주도와 울릉도로 변경되면서 218군(경기20, 충북10, 충남14, 전북14, 전남21, 경북22, 경남19, 황해17, 평북19, 평남14, 강원21, 함북11, 함남16)으로 줄어 해방까지 이어진다[10]. 1895년부터 1915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진행된 지방제도 개편으로 일제 강점 이전에 군으로 강등된 도시들 중에서 평양·개성·전주·의주·함흥처럼 후에 부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도시가 부의 지위를 누리다가 군으로 축소되고 오래된 군들이 없어지는 등 전통적인 지방제도의 질서는 식민지화 과정에서 흐트러져 간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강점 초기에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급격한 변화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토지조사사업 등 식민지 수탈을 위한 기반 정비사업이 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라 재정적 여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10년대에는 대부분의 도와 부가 기존 건물을 도청사나 부청사로 전용했다[6].

한편, 일제강점기 하급 지방행정관청사 즉, 군·읍·면청사의 건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 관련 도면이 디지털 자료로 구축되고[9] 그 해제[10]가 발간된 정도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조선사회가 식민지로 바뀌어가는 와중에 하급 지방행정관청사의 하나인 군청사는 어떤 건축적 양상을 보였는지를 기존건물을 군청사로 전용한 경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건물이 군청사로 전용되었는지, 전용할 때 군청사의 위상 및 기능에 맞도록 어떻게 변경했는지, 전용 후 증·개축한 경우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

연구범위는 1915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존속했던 218개 군의 군청사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에 의존하는데, 군청사의 건축 상황을 알려주는 기초자료는 그 개수·실내변경·증축·신축 등을 계획하면서 작성된 도면일 텐데, 다행히 국가기록원이 2007년부터 공개한 통감부

기와 일제강점기 관립시설 건축도면 중 73개 군의 도면 181매가 있다. 1910년대 작성되거나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도면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10]. 이 중에 기존건물을 사용하면서 증·개축하거나 실내를 개수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도면 16건[11]과 조선총독부와 도 사이에 오고 간 군청사 관련 문서, 군지(郡誌), 신문, 잡지 등도 활용한다.

2. 기존 건물을 군청사로 사용

1910년대에는 군청사 신축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기존 건물을 군청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용도의 기존 건물의 전용과 대한제국기 군청사를 그대로 군청사로 이어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는 기존 건물을 군청사로 사용한 경우로 구분된다.

2.1 다른 용도의 기존 건물을 사용한 경우

Table 1은 군청사 외 다른 용도의 관청사를 전용한 사례 34건을 정리한 것이다. 객사 7건, 동헌·관아·관아부엌(官廚) 16건, 감영·판관청사·도청·작청 5건, 재무서·세무서·공립학교 3건, 향청 2건 그리고 개인주택 1건이다. 주로 해당 지방의 관립시설, 특히 객사나 관아 등 행정관청사를 군청사로 전용했고 마땅한 시설이 없을 경우 개인주택까지 전용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의 출처 기록에 따르면 진천군청사는 1520년대, 경주군청사는 1600년대, 이천군청사는 1412년 축조되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까지 군청사로 전용되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낡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축요청이 나온다. Table 1 마지막 열에 전용 이후 신축을 확인한 경우를 정리했는데, 대부분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이다. 한편 시흥군청이 1936년 초반 영등포가 경성에 편입되면서 영등포세무서가 폐쇄되자 그 건물로 옮겨갔듯, 1930년대 후반까지 전용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

2.2 군청사로 군청사로 이어 사용한 경우

Table 2는 대한제국기 군청사를 그대로 군청사로 이어 사용한 사례 17건이다.

전반부 14건은 세끼노 타다시(關野貞)가 1909-1912년 4차에 걸쳐 진행한 전국 각지의 한국건축조사(1차 탐

Table 1. *Goon*(郡) office buildings reused another type of buildings

* - : unknown.

To (道)	Goon (郡)	purpose of existing building	source	exterior	new construction year after reusing
JeonNam	GwangJu	<i>GaekSa</i> (客舍)	[2]	Fig.1 (a)	1922
GangWon	ICheon	"	<i>Maell-sinbo</i> 1938.6.7.		1929
ChungBuk	JinCheon	"	<i>Maell-sinbo</i> 1931.7.1.		1932
GangWon	KeumHwa	"	<i>Maell-sinbo</i> 1930.7.26.		1930*
GyeongBuk	GyeongJu	"	<i>DongA-ilbo</i> 1934.7.20.		1935
JeonNam	NaJu	"	[3]		-
GangWon	PyeongChang	"	[3]		-
GyeongNam	MilYang	<i>GwanAh</i> (官衙)	<i>Maell-sinbo</i> 1927.5.4.		1929*
GyeongBuk	YeongCheon	"	<i>DongA-ilbo</i> 1932.12.7.		1932
GyeongGi	JangDan	"	<i>ChoSeoJungAng-ilbo</i> 1933.12.12.		1934
JeonBuk	JangSu	<i>AhSa</i> (衙舍)	[3]		-
JeonBuk	JinAhn	"	[3]		-
JeonNam	HaeNam	"	[3]		-
JeonNam	BoSeung	<i>DongHeon</i> (東軒)	<i>Maell-sinbo</i> 1930.7.22.		1931
JeonNam	WanDo	"	[3]		-
ChungNam	SeoSan	"	[3]		-
ChungNam	HongJu	"	[3]		-
ChungNam	HaeMi	"	[3]		-
JeonNam	UnSeong	"	[3]		-
JeonNam	JinDo	"	[3]		-
PyeongBuk	YeongByeon	"	[3]		-
PyeongNam	MaengSan	<i>DongHeon, AhSa</i>	[3]		-
PyeongBuk	GuSeong	<i>GynJu</i> (官廳)	[3]		-
GyeongGi	GoYang	<i>GyungGi-GamYeoung</i> (京畿監營)	<i>Maell-sinbo</i> 1914.3.3.	Fig.1 (b)	1928 *
JeonBuk	JeonJu	office for JeonJu-bu <i>PanGwan</i> (判官)	[4]: 19	Fig.1 (c)	1923
JeonNam	SeungPyeong	<i>JakCheong</i> (作廳)	[3]		-
JeonNam	GyangYang	<i>JankCheong, HyeonSa</i> (縣舍)	[3]		-
PyeongNam	DaeDong	PyungNam-do office building	[5]; <i>Maell-sinbo</i> 1928.2.14.	Fig.1 (d)	1931
GyeongGi	SiHeung	YoungDeungPo Tax office building	<i>Maell-sinbo</i> 1936.4.23.		-
ChungNam	KeumSan	Finance office building	<i>Maell-sinbo</i> 1935.6.29.	Fig.1 (e)	1935
JeonBuk	OkGu	GunSan public school of agriculture	[4]: 36		1926
HamNam	HongWon	<i>HyangSaDang</i> (鄉射堂)	[3]		-
PyeongNam	DyeokCheon	<i>HyangCheong</i> (鄉廳)	<i>Maell-sinbo</i> 1917.8.7.		-
PyeongBuk	YeongCheon	private residence	<i>DongA-ilbo</i> 1927.4.15.		1927

*The year for GoYang and ICheon each is of the completion ceremony, the year for MuilYang is of scheduled for completion, and the year for GeumHwa is of the ceremony of putting-up the ridge beam.

지부 건축소 의뢰, 2-4차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의 의뢰)에 포함된 대한제국기 군청사들이다. 그는 조사한 고건축에 대해 갑·을·병·정(甲乙丙丁)으로 등급을 매겼는데[15], 군청사를 비롯해 지방관아에는 모두 “특별보호가 필요 없는” ‘병’과 ‘정’을 매겼고[3] 특히 모든 군청사에는 가장 낮은 등급인 정을 매겼다. 낮은 등급을 받은 문화재는 더 이상의 조사연구를 통해 재평가되거나 소극적 보호조치 받지 못한 채 변경·중축·소실·심지어 훼손 등 문화재로서 가치를 잃어갔다. 특히 1909년 통감부

가 의뢰한 1차 조사의 목적을 보면 “구 건축물을 새로이 행정시설에 전용하고 혹은 파괴되거나 철거의 위험이 있는 것은 그 중요도에 의해 보존하는 것”[16]이라 했다. 즉, 이 조사의 의도에는 식민지배에 필요한 관청사로 사용할 전국의 오래된 목조건축물의 일체조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낮은 등급의 문화재로 판정된 군청사는 아무런 보호 없이 모두 일제강점기 군청사로 사용되었다. 이중 영산군·창평군의 청사는 1914년 군통폐합 때 각각 인접 군으로 편입되며 군청사로서 기능은 마감되었다.

Table 2. *Goon*(郡) office buildings reused previous same *Goon* office buildings * - : unknown.

To (道)	Goon (郡)	investigation year by <i>Sekino Tadashi</i>	source	new construction year after reusing	note
GyeongGi	GangHwa	1909	[7]: 60	1935	
PyeongNam	GangDong	1911	[7]: 46	-	
GyeongNam	SeungCheon	1911	[7]: 58	1923	
GangWon	YangGu	1912	[8]: 58	1937***	
GyeongNam	YeongSan	1910	[7]: 53	not newly constructed	incorporated into ChnagYoung- <i>goon</i> at 1914
GyeongNam	GoRyeong	1910	[7]: 60	1937	
JeonNam	ChangPyeong	1910	[7]: 52	not newly constructed	incorporated into DamYang- <i>goon</i> at 1914
GyeongNam	HamAhn	1910	[7]: 52	1931***	
JeonNam	GuRyae	1910	[7]: 53	1936	
GyungBuk	SyeungJu	1910	[7]: 52	-	
ChungBuk	OkCheon	1910	[7]: 59	-	
JeonNam	NaJu	1910	[7]: 53	-	
ChungBuk	BoEun	1910	[7]: 52	-	
JeonBuk	NamWon	1910	[7]: 52, <i>DongA-ilbo</i> 1928.8.28	1928	
ChungNam	DangJin	-	<i>DongA-ilbo</i> 1926.5.22	1926	
GangWon	JeongSeon	-	<i>Maell-sinbo</i> 1929.7.12	1930	
GyeongGi	BuCheon**	-	<i>Maell-sinbo</i> 1914.3.5	-	reused from 1914

**BuCheon-*goon* office building was reused not of same *Goon* but of InChen-*goon* office building from 1914.

***The year 1937 for YangGu is of scheduled for completion and 1831 for HamAhn is of the completion ceremony.

한편, 마지막 3건(당진, 정선, 부천)은 신문기사에서 발견했는데, 부천군청사는 1914년 부천군이 개설되고 인천군이 부로 승격하면서 기존의 인천군청사 건물을 부천군청사로 사용했다.

2.3 용도를 알 수 없는 기존 건물을 사용한 경우

Table 3은 용도를 알 수 없지만 이전 건물을 군청사로 사용한 경우가 16건이다. 전용 당시 이미 몇백 년 전

에 지은 건물이었다는 기록들이 종종 나오고, Table 3에서 정리한 전용 후 신축년을 보면 1926년부터 1942년까지 해당해 이미 오래된 건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세 경우를 합산하면(1914년 통폐합으로 마감된 2개 군은 제외, 객사-군청사를 모두 사용한 나주군은 1개로 처리) 총 67개 군이 청사를 신축하지 않은 채 기존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218개 군청사의 약 30%에 해당한다. 자료로 확인한 것만 해도 꽤 많은 군청이 초기에는 기존 건물을 청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감영, 아

Table 3. *Goon*(郡) office buildings reused previous unknown purpose of buildings * - : unknown.

To (道)	Goon (郡)	previous building information	source	exterior	new construction year after reusing
GyeongBuk	SangJu	"Great Han(韓) Empire period building"	<i>DongA-ilbo</i> 1924.2.3.		1926
GangWon	GangRyeong	"govenmental facility"	<i>Maell-sinbo</i> 1928.6.22.		1928
ChungBuk	ChungJu	"Meiji period building"	<i>Maell-sinbo</i> 1928.11.9.		1928
HamNam	BukCheong	"Great Han Empire period building"	<i>Jungoye-ilbo</i> 1929.11.29.		1930
HamNam	YeongHeung	"constructed before hundreds of years"	<i>Maell-sinbo</i> 1930.8.4.		1930
GyeongBuk	YaeCheon	"early 1400s construction"	[12]		1930
JeonBuk	MuJu	about 1850 construction"	<i>Maell-sinbo</i> 1930.12.4.	Fig.1 (f)	1930
GyeongNam	yangSan	"building of old days"	<i>Maell-sinbo</i> 1931.4.28.		1931
GyeongNam	UiRyeong	"early 1800s construction"	<i>Maell-sinbo</i> 1932.7.12.		1932
HwangHae	SuAhn	"constructed before hundreds of years"	[13]		1932
PyeongNam	YeongWon	"1810 construction"	<i>DongA-ilbo</i> 1932.8.7.		1932
ChungBuk	DanYang	"1769 construction"	<i>Maell-sinbo</i> 1932.9.17.		1934
GyeongGi	SuWon	"1705 construction"	[14]		1938
GyeongGi	GimPo	"constructed about 300 years before"	<i>DongA-ilbo</i> 1938.3.12.		1942
GangWon	PyungChang	"about 1640 construction"	<i>Maell-sinbo</i> 1940.7.6.		-
GangWon	HyoeYang	"about 1840 construction"	<i>Maell-sinbo</i> 1940.7.17.		-

사, 향청, 객사, 도청사 등이 여럿 등장하므로 해당 지역에 있는 관립시설을 활용했다고 보이지만, 드물지만 개인주택도 전용되었다.

Table 1~3에서 정리했듯이, 67개 군 중에서 이후 신축하는 군이 38개, 해방까지 전용하는 군이 2개이고 나머지 27개 군은 알 수 없다. 가장 이른 신축은 전남 광주군청사의 1922년, 가장 늦은 신축은 경기 김포군청사의 1942년이다. 1920년대 13건, 1930년대 전반기 17건, 후반기 7건으로 1930년대 전반기에 신축이 집중된다.

2.4 외관

앞의 2.1-2.3의 세 경우에서 사진·도면·글자료 등을 통해 부분이나마 기존건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Fig. 1은 외관을 알 수 있는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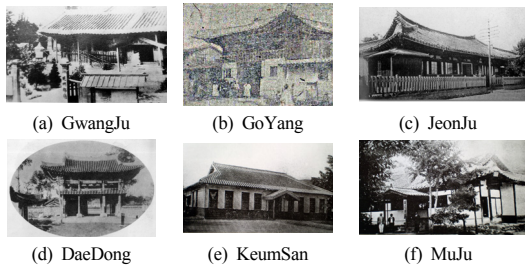


Fig. 1. exteriors of Goon office buildings reused another type of buildings -1

Source: (a) [2], (b) *Maell-sinbo* 1914.3.6, (c) [4]: 19, (d) [5], (e) [4]: 51, (f) [4]: 50.

(a)광주군청사는 객사를 전용했는데, 군청 사무실은 객사 한쪽에 치우쳐 있었고 사진의 객사 본청은 광주면 소재 도·군 기타 기관의 집회소로 사용되었다[2]. (b)고양군청사는 전용한 경기감영을, (d)대동군청사는 전용한 평안도관찰사 정문 누각을 촬영한 것으로, 군청 사무실은 그 안쪽에 있었을 것이다. 반면 (c)전주군청사(전주부판관 청사: 풍락헌)와 (e)금산군청사(재무서 청사)는 군청 사무실을 짝은 것이다. (c)는 전면중앙에 현관도 내지 않았을 정도로 별다른 개수를 하지 않았고 (e)는 옆으로 긴 단층에 전면 중앙에 돌출현관을 달고 양 옆으로 세로로 긴 창 4개를 각각 설치한 모습이 1920년대 초반 신축되는 군청사와 같은 전면부 특징을 지닌다. 전용 이전 재무서 청사 역시 오래된 건물을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반면 (f)무주군청사는 객사와 동헌 건물을 모두 전용했는데, 사진의 건물이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존건물

의 전면 중앙에 현관을 덧대어 달아낸 것은 다른 전용군청사와 같다. 한편, 글자료가 없어 Table 1, 2, 3에 정리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통해 기존 건물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 Fig. 2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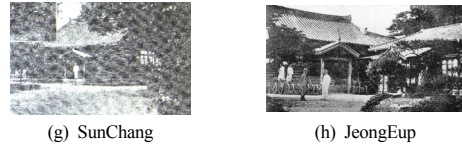


Fig. 2. exteriors of Goon office buildings reused another type of buildings -2

Source: (g) [4]: 49, (h) [4]: 45.

전북의 (g)순창군청사와 (h)정읍군청사인데, 각각 1932년과 1934년 신축할 때까지 군청사로 사용한 건물이다. 둘 다 기존 건물의 전면 중앙에 현관을 달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조 건물을 일제강점기 관립시설로 전용한 경우 전면 중앙에 돌출 현관을 덧붙이는 것은 그 시설의 권위를 강조하고 중심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들인데 [11], 전용된 군청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존 건물을 사용한 군청사의 증·개축

3.1 평면도 개축 사례: 경주군청사

전용 군청사들 가운데 전용 전후 평면도를 비교할 수 있는 경주군청사가 있다. 1935년 신축하기까지 객사(동경관)를 전용했는데(Table 1), 경상북도가 1931년 이 건물을 증축하고 실내를 수선하기 위한 예산계획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며 작성한 ‘재래객사(동경관)평면도’(Fig. 3)의(i)와 ‘모양체증축평면도’(Fig. 3)의(j)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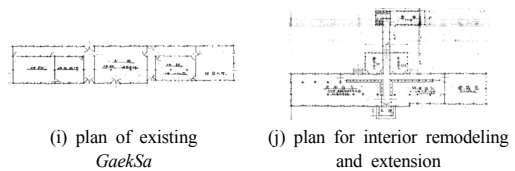


Fig. 3. plan of Gyeongju-Goon offic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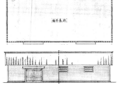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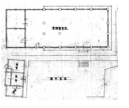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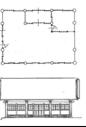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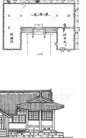

Source: [17]

두 평면도를 비교하면, 증축은 一자형 객사 전면 중앙에 작은 돌출 현관을 덧붙이고 뒤쪽으로 곧바로 중앙복도를 뒀다. 배면 중앙 좌우에는 돌출된 군수실과 응접실을 만들었다. 중앙복도를 이 두 실 사이로 연장해서 연결복도로 이은 후 그 끝에 부속가(변소와 창고로 구성)를 만들었다. 또한 객사의 여러 방(가운데는 ‘토간(土間)’이라 표기, 나머지 방에는 평수만 표기)을 구획하던 벽들을 없애고 중앙복도를 축으로 좌우 두 실로 구분한 후 각각 낮은 칸막이를 만들어 민원인 영역과 근무자 영역(좌측 서무계실, 우측: ○○계실(○: 알아볼 수 없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건물 맨 우측에 회의실을 별도로 구획했다. 이리하여 군청사는 본가와 뒤로 연결복도로 이어지는 부속가를 가지는 형상이 되었다.

3.2 증·개축 과정

군청사의 재래평면도와 증축(증축계획) 평면도를 좀 더 비교하면 기존 건물을 군 사무에 적합하도록 변경·증축하는 경향을 더 잘 알 수 있다. Table 4는 1910년대 말 작성된 재래·증축(증축계획) 평면도·입면도 4건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4. plans and facades before and after extension of Goon office buildings used existing buildings

Goon (郡)	before extension work	after extension(HoeRyeong) or extension planning(another)
(k) Hoe Ryeong (1918)		
(l) Jeong Pyeong (1919)		
(m) Jin Cheon (1919)		
(n) Hong Cheon (1919)		

*source: (k) [10]: 384-5, (l) [10]: 387, (m) [11]: 14, (n) [11]: 13

모두 증·개축하면서 정면 중앙에 현관을 덧붙이고 부속가를 증축해 면적을 늘렸다. 본가가 한옥이라도 부속가는 간단한 양식 목조건물로 만든 점도 공통된다. (l)정평군청사와 (n)홍천군청사에서는 현관을 들어서 곧바로 민원인 대기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는 Fig. 3의 경주군청사에서 민원인 대기공간을 건물 뒤쪽에 둔 것과 정반대다. 기존 한옥의 기둥 위치를 고려해 구획한 차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정평·홍천군청사가 더 일반적인 공간구획이다.

4. 결 론

일제강점 초기인 1915년 218개로 줄어든 군의 개수는 해방까지 유지되는데, 기존건물을 전용한 군청사는 본 연구가 발굴한 개수만 해도 67개로 약 30%에 해당하고 전국에 걸쳐 있다. 기존 건물로는 조선의 지방관아, 대한제국의 지방행정시설을 비롯한 관립시설이 대부분이고 개인주택이 1건 있다. 대한제국이 군청사를 이어 사용한 17건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을 전용한 경우도 16건도 있다. 어느 경우든 군 업무에 맞게 개조·증축되는데, 1)여러 방을 터서 큰 방을 업무공간으로 만들고 그 안에 접수대를 놓아 민원인 대기공간과 구분하고 2)군수실, 응접실, 회의실은 방으로 구획하고 3)전면 중앙에 작은 돌출현관을 내달고 4)본가와 부속가를 별도로 처리한 후 연결복도로 잇는 방식이 공통적이다.

기존건물을 전용한 67개 군의 57%인 38개가 나중에 군청사를 신축하는데 그 절반인 17건이 1930년대 전반기 신축하고 이후 급감한다. 『朝鮮と建築(조선과 건축)』 1930년 5월 기사에서 “80개 군청사는 속히 개축을 요” 하지만 “재정상황상 그 전부를 일시에 개축할 수 없어 총독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점차 개축하기로 했다”[18]고 나온다. 그러나 그해 『매일신보』 5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13개 군청사의 개축비용만 계상된다.

이렇듯 전용된 여러 군청사가 속히 개축을 요할 만큼 낡고 비좁은 상황이었지만, 해방까지 전용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신축은 원활치 않았다. 하급 지방행정관청사인 군청사의 신축에 조선총독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했고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되면서 전용군청사의 건축상황과 작업조건은 열악해져 갔을 것이다.

References

- [1] Son, Jeong-Mok, Socioeconomic history of Korean cities in the period of the opening port, *Iljisa*, pp.92-93, 1995.
- [2]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Direct-controlled municipality, *Gwangju-si* chronicle, Vol 2,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Direct-controlled municipality, no page number, 1993.
- [3] Yeo, Sang-Jin,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s transition of Gaeksa in Joseon Dynasty, doctorate thesis of Seoul National Uni., p.218, p.234, p.237, 2005
- [4] National Museum of Jeonju, *Jeonbuk* inside of old pictures 1894-1945, *Tongcheonmunhwa-sa*, p.19, p.36, p.45, p.49, p.50, p.51, 1998.
- [5] Kim, Byeong-Yeon, *PyungYang-gi*, *Pyungnamminbo-sa*, no page number, 1964.
- [6] Kim, Myungsun and Park Jung-Dae, "Construction of To and Pu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Colonial Choseon",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4, No.2, pp.195-206, February, 2008.
- [7] Lee, Soon-Ja, A Study on the Historical Remains Research by the Japanese Empire, *Gyeonginmunhwa-sa*, pp.47-60, 2009.
- [8]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 summary report of Joseon heritage investigation(the year of Daejeong 1), p.58, 1914.
- [9]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chives of Architectural draw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vailable from: <http://contents.archives.go.kr>. (accessed Nov., 1, 2014)
- [10] Jeon Bong-Hee, Joo Sang-Hun and et al., Annotation of the Architectural Drawing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Vol VII, National Archives of Korea, pp.367-389, 2014.
- [11] Joo, Sang-Hun, "Ways of Remodeling from the Traditional Hanok to the Modern Local Governmental Facility in 1910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4 No.1, p.7-16, February 2015.
DOI: <http://dx.doi.org/10.7738/JAH.2015.24.1.007>
- [12] Institute of Joseon Architecture, *Joseon-to-Kenchiku*, Vol.10 No.4, p.122, April, 1931.
- [13] Institute of Joseon Architecture, *Joseon-to-Kenchiku*, Vol.11 No.8, p.33, August, 1932.
- [14] GyeongGi-do, Application of budget increase of GyeongGi-do for the year Sohwa 12, no. page number, 1937 (CJA0003247)
- [15] Kang, Hyun, Seiko Tadashi and Architectural Conservation in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13, No.4, p.51, December, 2004.
- [16] Lee, Soon-Ja, A Study on the Historical Remains Research by the Japanese Empire, *Gyeonginmunhwa-sa*, p.40, 2009.
- [17] GyeongsangBuk-do, Budget plan of GyeongsangBuk-do for the year of Shouwa 6, no. page number, 1931, (CJA0002802)
- [18] Institute of Joseon Architecture, *Joseon-to-Kenchiku*, Vol.9 No.6, p.37, June, 1930.

김 명 선(Kim-Myungsun)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2015년 2월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09년 9월 ~ 2010년 8월 : 독일 TU-Berlin 방문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리모델링